

벚꽃 핀 코로나19 시국... 공원 '복적'

“집안에만 있기 너무 심심”... 공원 방문객 급증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실내시설은 인기적 실종
보건당국 “위생수칙 잘 지키면 야외활동 괜찮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이 강화되면서 실내체육 시설 등 다중시설 이용 자제를 권고 하자 야외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25일 오전 제주시 신산공원에는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산책로를 걷는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일부는 아이들과 함께 돛자리를 펼치고 앉아 갖고 온 음식을 먹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공원 내에 설치된 운동기구에는 중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다.

가족들과 함께 공원을 찾은 김모

(62)씨는 “오랜만에 며느리, 손주를 만나려고 날을 잡았는데 식당·카페 같은 장소를 가려다가 혹시나 싶어 공원을 찾았다”며 “벚꽃도 피고 날씨도 좋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더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주민 강모(34·여)씨는 “다니고 있던 필라테스센터가 2주간 휴관을 한다고 해서 반려견과 함께 운동·산책 겸 공원을 찾았다”며 “어제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지만,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서 야외에서 운동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46·여)씨는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산책중인 신산공원 전경.

김현석기자

“최근 들어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며 “집에서 가만히 지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야외에서 햇볕도 쬐는 것이 면역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더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야외 공간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

리도 높아지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예방수칙만 잘 지킨다면 야외활동에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보건당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2m 이상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생활 수칙만 잘 지킨다면 야외활동을 즐기는 데 감염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신세계면세점, 골목상권과 상생부터”

제주도의회 성명통해 촉구
“지역환원 제도적 장치 없어”

최근 신세계그룹의 제주 면세점 추진을 두고 지역사회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6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의원경제모임 제주주민생경제포럼은 25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제주지역 면세점 사업진출 공식화 선언에 나선 대기업 ‘신세계’를 향해 도민 사회에서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경고를 보냈다.

특히 “현재 면세점 매출의 지역환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면세점 진출에 대한 별 다른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어 도민 사회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제주도

정을 향해 신세계 면세점의 제주 시장 진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비롯한 도민 권익보호 대책 제시도 요구했다.

이날 제주주민생경제포럼은 “신세계 면세점의 제주 시장 진출로 말미암아 연복로와 노연로를 비롯한 일대의 교통혼잡은 물론 예정부지와 인접한 제주지역의 대표적 골목상권인 ‘누웨마루 거리’ 붕괴 등 피해의 몫은 고스란히 제주도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면세점 사업 이외에도 제주 지역에서 호텔 사업의 첫 진출을 앞둔 신세계는 제주 지역에서의 다른 사업 영위를 위해서라도 도민 정서에 부합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에 앞서 도민 상생협력 방안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오은지기자

제주 낙농업계 개학연기 직격탄 ‘휘청’

생산량 38% 학교급식
한달 가량 소비처 잃어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제주 낙농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급식으로 나가야 할 우유가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1일 원유 생산량 42t 가운데 16.5t(38%)이 학교 급식으로 소비되고 있다. 그러나 개학 연기로 급식이 중단되면서 낙농업체에서는 남은 우유를 유가공 제품(치즈)과 유통기한이 길어지는 멸균유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지만 잉여우유는 계속 늘고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생산자단체인 제주축협 유가공공장(제주삼다우유)과 (주)삼양제주우유와 협의해 제주도와 도교육청 공직자 대상 유

제품 자율구매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행사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판매상품은 자연치즈(300g)와 멸균우유(190ml·24개)다. 현재 도청과 산하기관 및 행정시, 읍·면·동 전 부서에서 구매에 나서고 있으며, 도교육청에서도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구매행사에 동참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유제품 소비 확대로 이어져 낙농가들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참여와 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초·중·고별 급식으로 소비되는 우유의 양은 초등학교(118개소·4만3565명) 8713ℓ, 중학교(45개소·1만9393명) 3878.6ℓ, 고등학교(30개소·1만8703명) 3740.6ℓ, 특수학교(3개소·479명) 95.8ℓ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보훈청 6월 현충수당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은 6월 보훈의 달에 도내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 현충수당 10만원(연1회)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보훈청은 지난 2019년 6월에 현충수당 지급근거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했다.

현충수당 지급대상자는 국가유공자(전몰·순직군경,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6·18자유상이자)의 선순위 유족으로, 4월 30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면 신청 가능하다. 문의 제주도 보훈청 보상과 710-8424~8. 고대로그기자



마사회 직원들이 준비한 코로나19 극복 주머니 25일 제주시 애월읍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직원들이 지역내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전달할 코로나19 응급구호 키트를 제작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경찰, 코로나19 확산 대비 출·퇴근 분산

제주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직원들 간의 접촉을 줄일 수 있는 시차 출퇴근형 유연근무를 적극 권장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 직원이 공동 근무시간을 유

지하는 대신, 출근은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퇴근은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원별 출·퇴근 시간을 분산할 계획이다.

또 사무실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육아시간(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

무원이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 근무하는 것)과 모성보호시간(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들이 1일 2시간 이내에서 단축 근무하는 것) 사용도 적극 권장하겠다고 경찰은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내·외부 회의와 보고는 영상과 서면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마주보고 회의나 보고를 해야할 때도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이상민기자

사회적기업 인건비 상향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난 해소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번 강화로 제주도는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율을 오는 7월까

지 한시적으로 30%p 상향하고, 일자리창출 사업과 전문인력사업 지원금을 월 단위로 선지급한다. 이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은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을 월 118만원에서 178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비목별 사용한도를 확대하고 보조금의 인건비와 건물임차료 사용한도를 현행 20% 수준에서 30%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송은범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 사랑으로



3월 넷째 금요일은
서해수호의날



국가보훈처

그날처럼,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